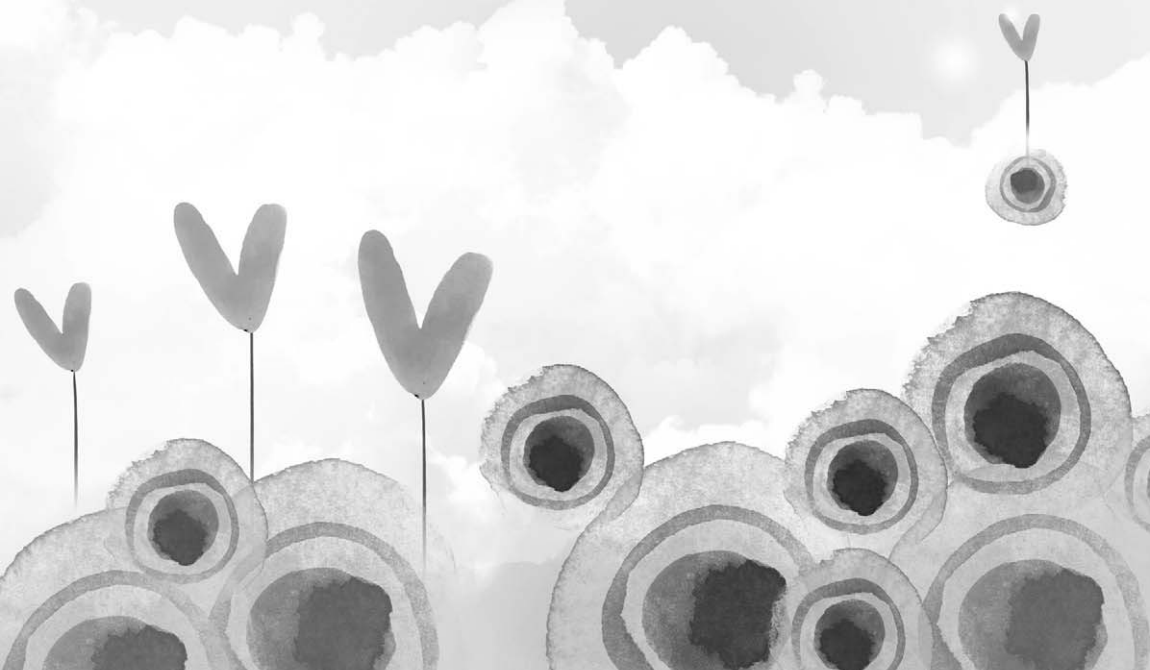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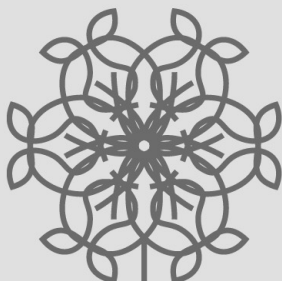


소설

•

최재효





최재효



약 력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임봉리 86번지 출생
- 송실대학교 영문과 졸업(60회)
- 《시와 소설》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원
- 한국순수문학회원
- 시집 『달하 노피곰 도드샤』외 4권
소설집 『유월에 내린 눈』
- 블로그 : <http://blog.daum.net/cjhoy6044>



유산(遺産)

1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새빨간 거짓말로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고(故) 이경희님 재산이 탐이 나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였으며, 이제는 이경희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고인의 유언장(遺言狀)은 고인의 평상시 생각과 사상 그리고 생활 방식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이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을 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력을 정지시켜 마땅히 이경희님의 모든 자산을 회수하여 고인(故人)의 두 자녀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고 이경희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전처(前妻)를 집에 불러들여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너무 파렴치한 피고의 행동에 치가 떨립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경희의 두 딸들은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의 변론(辯論)을 들으며 고개를 꼭 숙이고 있는 피고(被告) 신동석의 뒷

모습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법정 분위기는 이경희의 두 딸들이 고용한 변호사의 변론을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로 흐르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동석은 인륜(人倫)을 저버린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있었다. 재판장은 동석에게 변론 기회를 주었지만 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고 싶어도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 같아서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재판장은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대취(大醉)한 사람처럼 피고석에 앉아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동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 달 후 2차 변론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동석은 한 달 전, 이승을 달리한 재혼한 처(妻) 이경희의 마지막 모습을 회상(回想)하고 있었다.

“경희, 나도 데리고 가지 않고 어찌 혼자 갔어? 당신 없는 세상을 나 홀로 어떻게 살라고. 세상은 온통 나를 도둑놈 취급을 하고 있어. 경희 몸에서 나온 두 딸까지 나를 날강도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나는 이승에 머물고 싶지 않아. 나도 데리고 가라고. 나의 전처인 S는 나와 상관없어 제 발로 기어들어와 나하고 살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이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경희, 나를 데리고 가라고, 제발…….” 동석은 중얼거리며 갈지자 걸음으로 법원을 나와 인근 카페로 들어갔다. 경향이 없어 점심 식사도 거른 동석은 아무 술이나 가져오라고 주문하였다. 카페 여주인이 스카치위스키 한 병과 안주를 가져오자 동석은 빈속에 술부터 들이 부었다. 금방 양주(洋酒) 한 병이 비었다.

“사장님, 안주도 안 드시고 술만 드시면 어떻게 해요.” 방금 사슴피라도 마시다 나온 사람처럼 입술이 유난히 붉은 요염한 카페 여주인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동석을 쳐다보았다.

“미안한데요, 여기 조니워커 한 병만 더 가져와요.” 동석의 눈동자가 약간 풀린 듯 했다. 요염한 엉덩이를 썰룩거리며 여주인이 양주 한 병을 가져왔다.

‘겉으로 봐선 멀쩡한 사람인데. 어째 말이 좀 어눌해 보이네. 이거 첫손님한테 술값 떼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여주인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동석을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우린 하늘이 맺어준 부부였어. 천생연분이었다고. 나나 당신이나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만난, 원앙 같은 부부였어. 그런데, 그런데 부부의 금슬(琴瑟)이 너무 좋으니까, 하늘이 시기(猜忌)한거야. 난, 당신이 저승으로 떠났다고 믿고 싶지 않아. 지금도 당신이 내 곁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여도 난 땃땃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아. 경희, 사랑해. 당신이나 나나 다 같이 딸린 자식이 있지만 자식은 자식일 뿐이야. 아니지,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지.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먼저 떠나는 거야? 경희, 으흐흐 흐흐…….’ 동석이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끼자 여주인이 놀라 달려왔다. 대낮부터 덩치 큰 사내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자 여주인은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남자로 판단하고 동석의 행동을 예의 주시했다.

서울 유명대학을 나온 동석은 졸업도 하기 전에 국내 굴지 대기업에 당당하게 입사하였다. 서울서 태어난 동석은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로 외아들이었다. 식당을 크게 운영하는 부모 덕분에 동석은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다.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동석은 그 기대(期待)에 부응하였고, 주변에 혼기가 찬 딸을 둔 부모들은 동석을 은근히 사윗감으로 점 찍어놓고 공작(工作)을 펼치기도 하였다. 동석의 부모는 아들에게 심성이 곱고 착한

아가씨를 짝지어주고 싶어 했다. 동석은 Q여대를 졸업한 S와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었다. S는 미인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출중한 미모(美貌)를 자랑하고 있었다. S의 자유분방한 태도는 금방 두 집안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S는 집에 친구들을 불러 들였다. 동석이 출근하고 나면 으레 동석의 보금자리는 S친구들이 점령하였다.

S는 결혼 전에 방송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늘 가까이서 유명 연예인들을 접한 덕분에 S 역시 자신을 연예인(演藝人)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술과 담배는 기본이었고 곁에는 늘 수려한 외모의 남자 모델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한 경력은 동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동석이 출근하는 시간에도 S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회사일로 밤늦게 까지 야근(夜勤)하고 귀가하는 동석을 반기는 것은 늘 벅시계였다. 낮에는 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어둠이 내리면 S는 친구들과 압구정이나 이태원으로 놀러 나가기 일쑤였다. 밤늦도록 놀다가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S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동석은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충실하겠지’ 하는 생각에 S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S는 동석과 잠자리에 들면 동석에게 피임기구를 착용토록 강요하다 시피했다. 동석은 ‘S가 좀 더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 하였다. 결혼하고 2년이 넘어가도 S는 여전히 동석에게 피임기구 착용을 요구하였다. 동석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거나 갑작스런 부부관계를 요구하면 S는 옆방으로 피하였다.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동석은 마음에 상처(傷處)를 입으면서 두 사람 사이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S는 임신을 하였지만 S는 동석 몰래 유산을 시켜버

렸다. 날이 갈수록 친정 부모와 시부모의 성화가 끊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S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고, 주변의 달갑지 않은 축복을 받으며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태어나자 동석의 희망대로 S는 아이 키우는데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예전보다 술과 담배를 줄이면서 육아(育兒)에 전념하는 듯 했다. 그런 딸이 걱정이 되어 S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딸의 집에 와서 딸의 시녀(侍女) 노릇을 해야 했다. 딸이 예전의 자유분방한 태도에서 차차 현모양처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자위하면서 S의 친정어머니는 안도(安堵)하였다. 아이가 태어나자 동석은 웬만한 회식(會食)자리나 모임은 사양하고 일찍 귀가하였다. 일찍 귀가하는 동석을 S는 시큰둥하게 맞았다. 무료한 결혼의 일상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동석은 의무감으로 자신을 맞아주는 아내 S에게서 타인(他人)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부부 관계에서도 S는 목석같았다. 부부관계를 맺을 때마다 S는 마치 직업 여성처럼 빨리 동석이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런 S를 보면서 동석은 첫 경험을 했던 서울 청량리 588번지의 홍등가(紅燈街)를 떠올리곤 했다. 아가씨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누워서 손님이 어서 빨리 일을 마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느낌을 아내인 S에게서 발견하고 동석은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였다. S는 더 이상 아이 갖기를 원하지 않았다. 몸이 약하다는 이유가 전부였다. 동석은 집요(執拗)하게 둘째를 원하였지만 S는 신혼초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잠자리를 요구하는 동석에게 지나친 청결과 콘돔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혹시, 이 여자에게 남자가 있는 게 아닐까? 신혼 때부터 집요하게 피임(避妊)을 요구하는 걸 보면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 남편의 요구를 보기 좋게 묵살하거나 건강을 이유로 부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언젠가 이 여자의 뒤를 감시해야겠어. 분명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예전의 그 습관이 되살아 난거야. 내가 낮에 수시로 집에 전화를 걸어도 거의 받는 날이 없었어.’ 하얀 용암(鎔巖)을 분출하고 옆으로 벌렁 누운 동석은 급히 화장실로 향하는 S의 아름답고 요염한 뒤탄을 보며 이상한 상상을 하였다.

2

동석은 큰 아이가 태어난 3년 후 딸을 얻었다.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S를 어르고 달래서 어렵게 얻은 자식이었다. 막상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S는 모성본능(母性本能)을 발휘하였다. 동석과 관계는 부부도 아니고 남남도 아닌 이상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S는 둘째 아이의 양육을 이유로 동석과 동침(同寢)을 거부하였다.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동석은 거의 아내를 안아보지 못했다. 어쩌다 두 사람이 한방에서 잠을 자게 될 경우가 있어도 S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동석과의 관계(關係)를 거부하였다.

‘부부사이에 있어서 성(性) 즉, 섹스는 두 사람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어주는 핵심인데, 우리는 그런 핵심이 없는 부부야. 이렇게 일 년이 가고 오년이 흘러 십년이 지난다면 부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서로를 위하여 각자 갈 길을 갈까? 그러나 저 두 아이들은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평생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거나 불행의 수렁에 빠질 수 있을 텐데. 이 일을 어쩌나…….’ 동석은 아내와 성적트러블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

었다. 얼마후 아내 S는 안방을 사용하였고 동석은 다른 방을 사용하였다. 가족 네 명이 각자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

동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慾求)를 억누르고 수도에 정진하는 수도승(修道僧)이 아니었다. 점점 타인이 되어가는 아내를 바라만 봐야하는 동석은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육체적 욕구불만의 누적은 다른 탈출구(脫出口)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내와의 갈등으로 거의 매일 이어지는 폭음(暴飲)으로 동석은 하숙생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점점 더 높은 자신만의 철옹성(鐵甕城)을 구축해 나갔다. S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 낮이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자신만의 은밀한 생활에 전념하였다.

어느 날, 동석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고급 종이로 인쇄된 핑크색 명함을 발견하였다. *경찬 - (주)대산엔터테인먼트 대표 서울 강남구 **동 휴대전화 010-9876-****. 처음 들어본 연예기획사 대표이사의 명함(名銜)이었다. 이상한 생각이 든 동석은 명함에 적힌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해 놓았다. 자신과 관계를 거부하는 아내 S를 의심하고 있던 동석은 (주)대산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제법 그럴듯한 기획사였다. 잘생긴 외모의 대표이사 사진과 세련된 인사말, 현대적이고 심플한 인텔리전트 빌딩 전경(全景)이 홈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그렇지, 아내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방송국에 다녔었지. 그럼, 이 회사대표인 경찬이란 친구와 잘 아는 사인가?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이 남자와 아내가 혹시? 그렇고 그런 사이?’ 동석의 호기심(好奇心)은 의문에 꼬리를 물었다. 동석은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특별한 볼 일도 없으면서 남의 회사를 방문하기란 여간 거북한 일이 아니었다. 동석은 회사 입구에서부터

수위에게 출입을 저지당했다. 동석은 건강관련 의약품 영업사원이라고 속인 뒤 간신히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빌딩 7층에 대표이사 방이 있었다. 동석이 대표이사 방에 들어서자 두 명의 비서(秘書) 아가씨들이 상냥하게 웃으며 동석을 맞았다.

“어떻게 오셨나요?”

“아예, 대표이사님 좀 만나려고 왔습니다. 건강에 좋은 약을 좀 가져왔거든요.” 동석은 즉석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얼버무렸다.

“사장님은 지금 손님과 면담 중이세요? 사장님과 사전에 개인적으로 약속이 있으셨나요? 저희 비서실에는 사장님 면담이 잡혀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7층까지 오셨는지 모르지만 잘못 오신 거 같은데요. 4층에 가시면 대외섭외부가 있으니 그리로 가보세요.” 비서 아가씨들은 동석이 들고 있는 불룩한 가방을 유심히 살폈다.

동석은 말문이 막혀 우물쭈물 하다가 화장실(化粧室)을 물었다. 화장실로 향하는 동석의 뒤통수에 아가씨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동석이 억지로 비서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동석은 거울을 보며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들어 온 것을 후회하였다. 거울 속에 또 다른 동석이 거울 밖에서 씩씩하게 웃는 동석을 측은(惻隱)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손을 씻고 나오다가 동석은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저 웃음소리는, 저 웃음소리는 분명 아내의 웃음소리인데…….’ 동석은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인터넷에서 본 대표이사란 사내와 아내가 악수를 하고 있었다. 동석은 번개 맞은 사람처럼 온몸에 전율(戰慄)이 흐르는 것을 감지하면서 그 자리에

서 꿈쩍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태도로 보아서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닌 듯 했다. 사내는 두 손으로 S의 오른손을 꼭 쥐고 아쉬운 듯 인사말을 나누고 있었다. 동석은 10년 넘게 S와 살면서 아내가 저렇듯 세련되고 섹시미가 흐르는 여인인지 미처 몰랐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동석은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을 훔쳐보면서 분노가 아닌 희열(喜悅)을 느끼고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경찬이란 사내의 목살을 잡고 싶었으나 마음뿐이었다. 5분 넘게 동석의 아내 S는 경찬이란 남자와 밀담(密談)을 나누었다. 남자의 말에 S는 좌우를 둘러보기도 하고 배꼽이 빠져라 웃기도 하였다. 동석은 두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기만 할 뿐이었다. S는 사내와 헤어지면서 사내의 뺨에 가볍게 키스 까지 하였다.

‘앗, 저놈에게, 저놈에게 내 마누라가 키스를 하다니? 난, 난 한 번도 마누라에게 저런 키스를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동석은 아내와 경찬이란 남자가 헤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쪼그리고 앉았다. 동석은 방금 본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하였다. 믿고 싶지 않은 광경에 동석은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背信感)과 분노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당장 달려 나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른 자신을 가책하면서 동석은 가슴을 쳤다.

‘아아,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내 눈앞에서 다른 사내 뺨에 키스를 하다니. 내가 방금 헛것을 본 게 틀림없어. 아내는 지금 친구들과 어울려 명동이나 압구정에 가 있을 거야. 샤넬이나 루이 뷔통 매장 아니면 스타벅스에 앉아서 입방아를 찧고 있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다른 여인을 아내로 착각한 게 틀림없어.’ 정신이 나간 동석은 휴대전화를 꺼내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전

화를 받지 않았다. 동석은 다시 S에게 휴대전화를 걸었다. 늘 그랬던 것 처럼 S는 동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1분 간격으로 동석은 통화 버튼을 눌러댔지만 S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동석이 S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은 ‘10분 후 전화하겠다’는 문자를 미리 보내 놓고 전화를 해야 S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곤 했다. 동석이 S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확하게 10분이 흐르자 동석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내 S의 전화였다. 동석은 망설였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나서 동석은 전화 수신 버튼을 눌렀다.

“전화했어요?” 송곳 같은 S의 목소리가 동석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으응, 전화했었어.” 동석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억누르고 간신히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는 순간순간에도 동석의 분노(憤怒)는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S의 목소리는 무척 사무적이었다.

“아, 아냐. 그냥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고마워요. 살다보니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도 있겠네요. 있다 집에서 봐요.” S의 차가운 목소리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이런, 빌어먹을……, 이런 여자를 마누라라고 믿고 사는 내가 바보지.” 동석은 ‘당신 지금 어디야? 누구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S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럴 용기도 없었다. 아내와 간단한 전화 통화를 끝낸 동석은 가슴을 내리 쳤다. 아들, 가장(家長), 두 아이의 아빠, 타인(他人) 같은 여인의 지아비, K기업체 부장(部長), 잘나가는 직장인, 사회성원……, 어디를 봐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동석은 울분을 삭혀야 했다.

‘마누라 뒷조사를 해보는 거야. 분명히 뭔가 있어. 가정주부가 왜 연예기획사에 들락거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로? 설마 내일 모레면 마흔에 접어드는 나이에 연예인이 되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아내와 그 남자가 무슨 사이일까. 친구는 아닐 테고, 동창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두 사람이 애인사이가 분명해. 아니, 확실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어디 두고 보자.’ 동석은 비틀거리며 회사를 빠져 나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온 동석은 눈을 의심하였다.

“아니 당신이 웬일이예요? 이렇게 초저녁에 다 들어오시고. 정말로 내일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S가 진한 화장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뛰어 나오며 웃고 있었다.

3

동석이 자신의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S는 지극히 현모양처(賢母良妻)의 모범이 될 만한 행동만을 골라서 하였다. 동석을 안방으로 불러 동침(同寢)하는가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챙겨주며 와이셔츠나 양말 등 동석이 회사에 출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애쓰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동석은 잠시 혼란스러웠으나 일단 S의 행동을 두고 보기로 하였다. 갑작스러운 변신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기 십상이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동석은 낮에 자주 집으로 들어왔다.

그때마다 아내 S는 집안 청소를 하거나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와서 반찬을 만드는 등 지극히 평범한 주부의 모습을 보여 주었

다. 동석은 그런 아내에게서 차차 호감(好感)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진정으로 현모양처가 된 것으로 착각이들 정도였다. 언젠가 연예기획사에서 보았던 여인은 아내가 아닌 제3의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렇게 새로운 일상(日常)이 서너 달 지나자 동석은 회사 일에 전념하였고 S는 늘 집에 있으면서 외부(外部)와는 담을 쌓고 있는 듯 했다. S의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았다.

성실하고 상사(上司)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스타일의 동석은 6개월간 미국 지사에 파견근무(派遣勤務)를 하게 되었다. 동석은 불안했다. 이제 막 아내가 집안 살림에 재미를 붙이고 예전의 태도에서 전혀 새로운 여인으로 변신해 자신을 진정한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는 아내를 두고 외국으로 간다는 것이 꼭 즐겁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는 타국(他國)에 파견 나갔다가 오면 승진(昇進)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너도 나도 서로 가려고 하였지만 나이도 어느 정도 먹고 회사 경력이 꽤 되는 동석에게는 꼭 마음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

동석이 미국으로 떠난 날 S는 날개를 달았다. 세상에 S의 자유분방한 생활에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주)대산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인 경찬은 거의 매일 S를 불러냈다. S의 내면에 잠시 가면(假面)을 쓰고 웅크리고 있던 사악한 기운이 서서히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S의 심신(心身)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S의 출중한 미모를 흠모하는 경찬은 S를 데리고 공식행사(公式行事)나 사적인 모임에 나가고 싶어 했다. 고급 외제승용차에 앉아 수천만 원 호가하는 날개를 입은 S는 금방 사교계의 여인으로 등장하여 많은 호사가(好事家)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점차 뿌리치기 어려운 검은 유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세(攻勢)를 받았다.

어떤 돈 많은 사내는 S에게 영화(映畵)에 조연급으로 출연 시켜주는 대신 자주 자신과 시간을 갖자고 하였다.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고급 호텔이나 별장에서 24시간 또는 48시간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 어떤 사업가는 S에게 5억을 제시(提示)하면서 자신이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가는데 보름 정도 함께 있다가 올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S지만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끼를 억제하지 못하고 영화 출연을 결정하였다.

S가 출연한 영화는 바람난 유부녀의 파멸(破滅)을 다룬 영화인데 극중 주인공인 바람난 여인의 친한 친구로 등장한다. 이상한 것은 S는 오히려 주인공 보다 노골적인 정사(情事) 장면에서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 야한 장면 출연을 거부하였으나, 감독의 설득으로 S는 점차 대담(大膽)해졌다. 동석은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회사의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현지 보고에 따라 원치도 않게 6개월 더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다. 아내와 두 아이들이 보고 싶기도 하였지만 회사일이 우선이었다.

거의 에로물이나 다름없는 3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上映)되자 조연(助演)으로 출연한 S는 서울에 내로라하는 색마(色魔)들에게 관심 대상이 되었다. 영화 배급사에는 매일 S에 관한 신상을 묻는 전화가 쇄도하였다. 영화 개봉으로 크게 대박을 터트린 것은 아니지만 영화에 출연한 것으로 S는 만족하고 있었다. 15년 넘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부인 처럼 생활해온 S는 영화 출연에 크게 고무(鼓舞)되었으며 서너 곳의 3류 영화감독으로부터 출연교섭을 제의 받았다. 동석이 해외 나가 있는 1년 동안 S는 다섯 편의 영화 촬영에 겹치기로 출연하는 쾌거(快舉)를 달

성하였다.

동석이 귀국했을 때 S는 이미 자신의 아내가 아닌 만인(萬人)의 아내가 돼 있었다. 영화 출연을 이유로 S는 거의 매일 집을 비우다시피 하였고 중,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자의 생활에 탐닉(耽溺)하였다. 동석은 아내에게 영화 출연 금지를 원했지만 S는 동석의 말에 콧방귀도 꾸지 않았다. 두 아이들은 동석이 맡는 조건으로 하고 동석은 아내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넘겨주고 협의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아아, 하나님, 오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날입니다. 난,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늘 당해왔지요. 아마도 그것은 나의 우유부단(優柔不斷)한 성격 탓일 거예요. 착하다거나, 순하다는 말은 곧 그 사람이 하이에나가 들끓는 서울에서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신성한 법정에서 자식 같은 아이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답니다.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한 죄로 말입니다.” 동석은 담배를 반쯤 피우다 재떨이에 비벼 끄고 잔을 비웠다.

“부처님, 세상은, 세상은 참으로 묘한 일이 너무도 많아요. 저는요, 삼류 에로배우가 된 애 엄마랑 이혼하고 새로운 여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면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세상일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세상인가 봐요.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그건 천당(天堂)이나 극락(極樂)이겠지요.” 동석은 술잔을 들고 혼자서 정신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 하였다.

동석이 아내와 협의이혼(協議離婚)을 하고 일 년을 넘기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무리 미우니 고우니하여도 S가 있을 때는 속옷이나 집에서 식사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나 홀아비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다. 회사일로 늘 늦게 귀가하는 동석은 다음날 아침에 식사와 출근할 때 입을 와이셔츠며 속옷 등을 미리미리 챙겨놔야 했다. 처음 서너 달은 독한 마음에 요리책을 펼쳐 놓고 김치찌개며 된장찌개를 손수 끓여 먹기도 하고 간단한 요리 정도는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독신생활이 일 년을 넘자 동석의 어머니는 더 이상 나이 먹은 자식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동석 누이동생들도 동석을 싱글에서 탈출(脫出)하도록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동석은 바빠졌다. 주말이면 비슷한 처지의 이혼녀나 남편과 사별(死別)한 여자들과 맞선을 보았다. 처음에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노모(老母)와 극성스러운 누이들의 성화에 모른척하고 선을 보았다. 초등학교 교사, 은행원, 공무원, 전업주부, 미용사, 자영업자 등 동석과 찻잔을 마주하는 여자가 점점 늘었다.

그러나 싱글의 중년 여인들은 동석을 만나자 마자 먼저 동석의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 조사(調查)하는 일부터 착수하였다. 월급여가 얼마나 되느냐? 자식들은 전처가 맡았어도 나중에 데리고 올 의향(意向)은 없느냐? 집은 몇 평이고 전자제품과 가구는 어떤 상태냐? 회사 정년은 얼마나 남았느냐? 건강은 어떠냐? 심지어 이혼전에 전처와 관계는 한 달에 몇 회 정도 가졌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취미와 특기는 어떻고 나중에 부부가 된다면 늘 함께하는 취미로 무

엇을 가지겠느냐? 등등 동석은 맞선보는 여자들마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물음에 실물이 날 지경이었다.

대체적으로 동석의 사정(事情)은 좋은 편이었다. 동석은 아내 S와 이혼하면서 살던 집은 전체인 S가 두 아이를 맡아서 양육하는 조건으로 전처에게 주었고, 바로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동석은 새로 장만한 집에 신부가 시집을 때 장만하는 모든 살림살이를 새로 들였다.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전자밥솥, 김치냉장고, 청소기, 침대, 장롱, 에어컨, 식탁, 책상, 식기, 서랍장, 거실장, 장식장 등 33평형 아파트가 거의 꼭 찰 정도로 살림살이로 채웠다. 이제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할 여자만 있으면 되었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기란 쉽지 않았다.

좀 괜찮다 싶으면 하나가 부족하였다. 동석이 맞선을 본 여자들 대부분 이혼녀들이었다. 한국 여인들이 다른 민족(民族)의 여성들에 비해 모성본능이 강한 탓일까. 이혼하면서 자식들은 거의 여인들이 양육하고 있었다. 물론 남자인 아빠보다 모성에 강한 엄마를 아이들은 더 선호(選好)하는 까닭이 있기는 때문일 것이다. 맞선 장소에 나온 싱글여인들은 거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었다. 좀 괜찮은 경우는 자식들이 결혼을 했거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였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상당기간 동안 동석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재혼한 아내의 자식이란 이유로 할 수없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싱글 여인들은 은근히 동석이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의 계부(繼父)로써 데리고 온 자식들은 친 자식처럼 대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자신의 핏줄은 전처에게 맡기고 대신 타인의 핏줄을 책임져야 하는 일은 재혼을 바라는 동석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맞선 본 여인이 마음에 들면 영락없이 어린 자식들이 있거나 요구조건(要求條件)이 상당히 까다로웠다. 동석이 스무 번도 넘게 맞선을 보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조건을 가지 여인은 만나지 못했다.

동석이 재혼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무너져갈 즈음 동석의 큰 누이가 꽤 괜찮다는 여인을 찾아냈으며 맞선을 보라고 하였다. 동석은 누이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의무감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상대 여인은 초등학교 교사(教師)였다. 상당히 교양있어 보이면서 다소곳한 태도가 동석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여인은 두 딸을 두고 있는데 모두 성년(成年)으로 10년 쯤 외국 유학중이라고 했다. 아마 두 딸들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결혼을 할 것 같다고 했다. 동석은 조건도 마음에 들었다. 동석은 여인에게 신상파악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카페를 나섰다. 겨우 커피 한 잔만 마셨을 뿐이다.

“우리 영화 보러 갈래요?” 동석이 여인의 눈치를 살폈다.

“영화요?” 맞선보러 나온 여인에게 영화를 보러가자는 동석을 여인은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아직 오후 4시여서 저녁 먹기에 어중간한 시간이었고, 남자가 영화를 보러가자는 것은 자신에게 관심(關心)이 있다는 증거였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면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참, 이름이 한자로 어떻게 돼요? 한자로 알아야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동석이 여인의 푹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물었다.

“오얏 이(李)에 서울 경(京), 계집 희(姬)자 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손수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인은 푹푹박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아, 경희씨, 서울 계집애란 뜻이네요. 하하 하하하…….”

“어머? 계집애란 소리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호호호호…….” 이경희는 동석의 순진한 면이 마음에 들었다.

“저는 매울 신(辛)에 동녝 동(東), 주석 석(錫)자를 씁니다. 제 이름 석자 역시 할아버님께서 지어 주셨지요.” 두 사람은 가슴 깊이 상대방의 이름을 각인(刻印)하였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본 영화는 ‘메디슨카운티의 다리’였다. 국내에서 개봉된 지 꽤 된 영화였지만 동석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마땅히 볼만한 것이 없자 지난 영화를 보기로 하였다. 경희 역시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본적이 없어서 언젠가는 꼭 보리라고 마음먹었던 영화였다. 동석은 S와 연애 시절이 생각나자 팝콘과 음료수를 사가지고 왔다.

“오늘 영화를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경희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逍風)가는 날 처럼 들떠 있었다.

“저도요. 커피나 한잔 마시면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동석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유부녀(有夫女)인 프란체스카 역을 맡은 메릴 스트립과 남자 주인공(主人公)인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작가(寫眞作家) 로버트 키키퍼역은 크린트이스트우드가 맡은 유부녀와 유부남의 짧은 사랑을 그린 애정영화(愛情映畵)였다. 첫 만남이지만 동석과 경희는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지낸 다정한 연인(戀人)같았다. 팝콘과 음료수를 들면서 경희는 동석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남녀 주인공이 애정표현을 할 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며 손에 은근히 힘이 들어가기도 했다. 영화 한편을 보는 과정에서 동석은 경희의 마음을 차지하고 말았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劇場)을 나섰을 때 두 사람은 다정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시장하죠? 우리 어디 가서 저녁 먹어요. 경희씨, 어떤 것을 좋아하세요” 동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전 못 먹는 거 빼고 다 잘 먹어요.”

“그래요? 하하 하하하……. 저도 그런데요.” 동석은 자주 가는 뽀스(Vips)로 경희를 데리고 갔다.

“동석씨 여자들 마음을 훔치는데 재주가 뛰어난 거 같아요. 혹시 저 말고 또 다른 여인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경희는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동석에게 눈을 살짝 흘겼다.

“예, 맞아요. 제 주변에 예쁜 여인들이 많아요. 우선 저희 어머니, 큰 누님, 둘째 누님, 여동생, 그리고 두 형수님들, 조카들 그리고 국외에는 오드리 헵번과 비비안 리, 에바 가드너,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등입니다.” 동석이 능청스럽게 대꾸하였다.

“호호호 호호호……, 정말 동석씨 못 말려요. 제 주변에도 멋진 남자 많아요. 저희 아빠, 오라버니 두 분, 형부 두 분, 조카들, 외국에는 그레고리 펙, 험프리 보가트, 주윤발, 제임스딘, 로버트 미첨 등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심신(心身)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상대를 스스럼없이 맞고 있었다.

“경희씨, 오늘 즐거웠어요. 매일 이렇게 경희씨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영화도 보고, 야구나 축구 경기도 보고, 등산도 하고요.” 동석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희는 맛장구를 치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혼자되고 맞선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맞선 본 남자들은 하나같이 제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큰 거 같아요. 저 사실은 친정 아빠가 물려준 강남에 아파트 한 채와 전 남편(男便)에게 위자료로 받은 큰 평생의 빌라 한 채가 있어요. 물론 예금과 보험(保險)도 좀 있고요. 제가 교사이니

까 나중에 정년퇴직하면 연금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딸 애들은 미국에서 유학중인데 거기서 결혼(結婚)하고 자리 잡고 살겠대요. 나보고 나중에 교직 그만두면 오라고 하네요. 같이 살자고요.” 경희는 동석이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말해주었다.

“경희씨, 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시고 나왔을 거라 믿습니다. 저 역시 남매(男妹)가 있는데 아직 중, 고등학생지만 애 엄마가 맡고 있어요. 큰 녀석이 아들인데 내년에 대학에 가고 둘째는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아비 역할(役割)은 해야 하기 때문에 두 아이들 독립할 때 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리고 저의 경제력은 경희씨 보다 못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33평형 아파트와 주식, 예금, 보험과 나중에 부모님이 세상을 뜨시면 상속받은 재산이 좀 있는데 시가(時價)는 아직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동석은 경희가 자신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사항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동석씨 마음에 들어요. 우리 매일 만나요.”

“매일?” 동석이 눈이 둥그레졌다.

“우리 휴대전화로 대화하면 되잖아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화상전화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매일 데이트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경희는 하얀 이를 드러내놓고 웃었다.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동석은 맞선을 보다 정말로 마음에 맞는 여인이 나타나면 무엇을 물어보고, 여자가 자신에 대하여 질문(質問)을 하면 어느 선까지 대답을 하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첫 데이트가 끝나고 동석은 경희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동석의 큰 누이는 동석이 다른 여자들을 선 볼 때 보다 훨씬 늦

는 것을 알고 뭔가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동석의 큰 누이는 친정엄마와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동석이 확실한 여자를 만난 것 같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동석의 어머니도 내심 동석이 늦자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다. 동석의 누이들은 모두 친절으로 모여들었다. 드디어 남동생이 홀아비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면서 금방 잔치라도 열 분위기였다. 동석이 귀가하자 누이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애, 동석아. 그 여자 어떻게? 마음에 드니? 심성은 어때? 너를 좋아하는 눈치니?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한거야?” 파발총처럼 쏘아대는 누이들 질문에 동석은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답하면서 한두 번 더 만나 본 뒤에 결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동석의 어머니는 아들이 드디어 홀아비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동석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홀로 되고서부터 늘 체증(滯症)에 시달리는 듯 했다. 빨리 아들을 재혼시켜 죽기 전에 며느리를 보고 싶어 했다.

5

첫 데이트 이후 동석과 경희는 경의 매일 만나다 시피 하였다. 경희는 퇴근시간이 동석 보다 빨라서 경희가 동석의 회사 근처로 오면 동석이 저녁을 사거나 주점(酒店)을 찾았다. 한 달간의 만남에서 경희는 동석을 여생을 함께할 최적의 배우자(配偶者)로 결론을 내리고 청혼(請婚)을 하였다. 동석은 청혼의 선두를 빼앗기자 무척 당황하였다. 대개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청혼을 요구하고 여자가 사양하는 듯 하다가 허락하는 것이 통례(通禮)

였다.

이듬해 봄 동석은 경희와 제2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양가(兩家)의 부모와 아들딸만을 불러놓고 조출한 결혼식(結婚式)을 올렸다. 동석과 경희는 가까운 친구와 직장 동료 몇몇만 초대하고 주변 인사들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결혼식장에 동석의 아들과 딸이 참석하였지만 경희의 두 딸들은 현지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동석의 가족들에 비해 경희의 가족은 1/3 밖에 되지 않았다. 결혼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동석의 전처인 S가 나타났다. 동석과 경희가 결혼 기념촬영을 하는 중이었다. S는 예전의 S가 아니었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바싹 말라 S를 아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알아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술에 취한 S는 동석과 경희에게 욕을 퍼부었다.

“흥, 네놈이 나를 버리고 잘 살 것 같냐? 내가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네놈이 외국에 자주 들락거리지만 앓았다면 나는 너하고 이혼하지 않았어. 허구한 날 독수공방(獨守空房)하게 만들어 나를 외롭게 하였어. 나쁜 놈, 너는 정말로 나쁜 놈이야. 내 인생을 망쳐 놓은 나쁜 자식이라고. 네년이 어떻게 저놈을 꼬였는지 모르지만 너도 조심해 이년아,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

동석이 남매에게 S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申申當付)를 하였는데도 S는 어떻게 알았는지 결혼식장에 나타나 휘방을 놓았다. 동석과 이혼한 뒤 잠시 잘나가던 S는 남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많은 돈을 사기(詐欺)를 당하기도 하였다. 국내 영화 시장에 외국 영화가 밀려들면서 국내 시장은 겨우 명맥(命脈)을 유지하였고, 그 와중에 삼류 영화나 에로물은 거의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저년이, 제 발로 제가 원해 이혼하고서 남의 경사스러운 잔치

에 웬 행패야. 행패가. 행색(行色)을 보니 많이 지쳐 보이는 게 생활이 녹녹치 않은 모양이군. 그 못된 버릇이 어디 가겠어. 보나마나 매일 술이나 처먹고 서방질이나 하고 다녔겠지. 밑구멍을 안 봐도 뻔 할 뻔자야.” 동석의 큰누이는 S에게 욕설을 해댔고 다른 형제자매들도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S를 창녀 취급했다. 동석은 비록 S가 망가져 보이긴 했지만 한때 자신의 아내였고, 두 아이를 낳은 배우자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서둘러 혼례식(婚禮式)을 마치 동석은 꿈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경희, 고마워. 내가 앞으로 경희한테 잘할게. 이제부터 나만 믿고 의지하며 이 거친 세파(世波)를 이겨내자고. 처음 경희를 봤을 때 난 경희가 나의 여자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 그 꿈이 오늘 이루어 진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로지 그 대만을 생각하면서 내 여생(餘生)을 즐기고 싶어. 나의 지난 결혼 생활은 엉망이었어. 물론 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었겠지. 그러나 경희를 만났으니 지난날의 쓰라린 경험(經驗)을 바탕으로 경희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우리 앞으로의 인생계획은 천천히 세우기로 하고 신혼여행을 왔으니까 실컷 즐기다 갑시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객실(客室)로 돌아온 동석은 경희를 꼭 안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저 애아빠 하고 이혼하고 정말로 외롭고 쓸쓸했어요. 제 주변에서 저를 원하는 남자들도 꽤 있었어요. 천생연분(天生緣分)은 따로 있나 봐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전남편과 모든 면에서 맞지 않아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苦痛)을 받았어요. 이제 먼 이야기가 되었지만 지금도 그 당시를 떠올리면 치가 떨려요. 저 역시 전반기의 제 인생을 잘 가꾸지 못하는데 대하여 변명(辨明)은 하고 싶지는 않

아요. 하지만 당신을 만났으니 지성(至誠)으로 당신을 뒷바라지 하면서 살게요. 우리 잘 살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희는 동석의 품에 안겨 눈물을 글썽거렸다.

“경희, 우리오늘 아들 만들어 볼까?”

“어머나? 이제 아이를 낳아서 어느 세월에 키우려고요? 호호호 호…….”

“그렇지. 나나 당신 나이에 아이를 낳으면 고생이 되겠지? 하 하 하하하. 그냥해본 말이야. 우리가 조금만 나이를 덜 먹었어도 2세를 가져볼 만도 한데. 자, 우리 와인 한잔하고 일찍 꿈나라 여행을 합시다. 내일 젊은 커플들하고 여행일정을 소화하려면 좀 피곤할거요.” 동석이 경희의 속옷을 벗겨주자 경희는 두 눈을 꼭 감으며 20년 전 전 남편과 허니문(Honeymoon)을 기억해 내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치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 이부종사(二夫從事)가 숙명인 것 같기도 했고, 남편이 있는 몸으로 외간남자를 만나 불륜(不倫)을 저지르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5박6일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직장으로 일하러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늘 붙어 다녔다. 주변에서는 두 사람을 보고 뒤늦게 인생을 찾았다는니, 깨소금 맛이 고소하다는니 별의별 말로 질투(嫉妬)와 시기(猜忌)를 하기도 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서너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동석에게 경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빨리 XX병원 응급실로 가보라고 하였다. 동석은 평소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갔다는 말에 하늘이 노랗게 보이며 가슴이 울렁거렸다.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멍한 상태로 응급실로 들어갔다.

“여보, 경희씨, 이게 어떻게 된 일ियो?” 동석이 병상(病床)에 잠든 경희의 손을 잡아주었다. 동료 교사로 보이는 사십 초반의

여자가 동석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점심시간 까지도 멀쩡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과 농담도 하고 아이들 수업지도 방식을 두고 토론도 벌였었거든요. 그런데 수업 시간 중에 이 선생님이 어지럽다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119를 불러 이리로 왔지만 저는 지금도 가슴이 벌벌 떨려요.” 동료 여교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럴 리가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쓰러지다니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병원까지 동행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석이 경희의 맥을 짚어봤지만 정상적으로 뛰고 있었다. 의사가 들어오더니 동석에게 경희의 상태를 이야기 했다.

“환자께서 심장발작증세(心腸發作症勢)를 보이셨습니다. 우선 심신의 절대안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근경색을 앓고 계신데 환자 본인도 증상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원인은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 안에 노폐물이나 코레스테롤이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져 심장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병하는 병입니다. 특히 환자의 경우는 급성(急性)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48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합니다. 며칠 발작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작이 일어날 경우 부정맥(不整脈) 현상이 일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란 심장 안에 스스로 전기 자극을 만들어 내는 곳 또는 만들어진 자극이 전달되는데 장애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고혈압, 대사성질환, 갑상선질환, 자율신경이상, 각종 약물부작용, 커피, 흡연, 정신적 흥분 등이 부정맥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환자에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동석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경희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는 시점(始點)에서 복병(伏兵)을 만난 것이다. 전혀 예상

치도 못했던 일이라 동석은 불안하기만 했다. 경희도 심장발작이 처음이라 충격이 컸다. 가끔 심장이 빠근하고 아픈 느낌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이혼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했다. 혼자서 살림을 꾸리고 외국에 유학 보낸 두 딸들의 뒷바라지에 경희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다.

“어머, 당신 언제 오셨어요? 별거 아닌데” 잠에서 깨어난 경희가 동석을 보자 반가워 했다. 경희는 자신 때문에 괜히 동석이 바쁜 시간에 온 것에 미안해 했다.

“당연히 와야지. 당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에요. 의사 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이삼일 폭 쉬면 될 거라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동석이 경희의 뺨에 키스를 했다.

“여보, 동석씨, 고마워요.” 경희는 전 남편에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의 표현에 감격했다. 냉랭하기만 했던 경희의 전 남편은 아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식사나 집안일을 하지 못하면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며 경희를 불안하게 했었다. 그런 전남편에 비하면 동석은 너무나 다정다감(多情多感)하고 배려심이 많고 가슴이 따뜻한 남자였다.

“당신 입원실로 옮기면 오늘부터 내가 이십사 시간 당신 곁에 있으면서 간병을 할거예요. 회사에 삼일 정도 휴가(休暇)를 신청했어요. 그러니 안심해요.” 동석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 있어요? 전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당신 회사에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경희는 동석의 배려(配慮)에 너무 고마워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경희씨,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르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요.” 동석은 경희 등을 다독거리 주

면서 속삭였다.

‘아아, 동석씨, 여보, 정말로 고맙고 또 고마워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남자의 따스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 보기는 처음이에요. 아버지도 그리고 전 남편도 저에게 당신처럼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았어요. 그 분들은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목석(木石)같은 남자였어요. 그러나 웬지 불안해요. 처녀때 만났더라면 좋을 뻔 했어요. 제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렸어요. 인연(因緣)이란 참으로 묘한 거 같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수백 수천 명의 남자가 있어요. 그 분들 개개인의 면모(面貌)를 자세히 뜯어보면 한결 같이 착하고 순진해요.

그러나 그런 착한 남자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돌변(突變)하는 걸까요? 부귀? 영화? 여자? 명예? 쾌락? 다른 그 어떤 것? 동석씨는 변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지금 제 심정 같아서는 당신은 백년 아니 천년만년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도 한 번의 이혼으로 가슴이 뻥 뚫렸을 거예요. 그 허전한 가슴을 제가 채워드릴게요. 유학중인 딸들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 애들도 당신을 친 아버지 이상으로 따를 거예요. 그 애들 성격이 나를 많이 닮았으니 분명해요. 항상 변함없이 제 곁에 있어주세요. 당신을 저의 새로운 인생 반려자(伴侶者)로 택한 뒤로 저는 꿈을 꾸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당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날부터 자꾸만 이상한 꿈을 꾸고 있어요. 생전 보지도 못한 어떤 여자가 나타나 저와 당신을 번갈아 보면서 자꾸 웃어요. 처음에는 혼해빠진 꿈으로 여겼지만 두 번, 세 번 자꾸 그 여자가 나타나니까 저도 신경이 쓰여요. 그러나 몇 번 나타났다가 말거예요. 아마 나를 질투하는 제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던 어떤 형상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기

도 해요. 아무튼 전 최선을 다해 당신을 보필하고 해로동혈(偕老同穴) 하도록 노력할게요. 어느 날 백마 탄 왕자(王子)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당신, 저에는 너무 과분한 거 같아요. 앞으로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은 당신을 향할 거예요. 사랑해요.’ 경희는 눈가가 촉촉이 젖어 동석의 품에 안겨 잠이든 듯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6

동석의 간병(看病) 덕분에 경희는 사흘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고 보름이 흘렀다. 동석은 월요일이 마침 국경일(國慶日)이어서 모처럼만에 연휴(連休)를 경희와 설악산으로 휴양(休養) 겸 여행을 가자고 했다. 동석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희는 조수석에 앉아 동석에게 군대이야기며 총각 시절 첫사랑 이야기 등을 해달라고 졸랐다. 동석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경희는 박수를 쳐대며 소녀처럼 좋아하였다. 동석이 피곤할 것 같으면 경희는 노래를 하면서 미시령을 넘어 설악산으로 향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로 가는 차량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저녁 무렵 설악산 S호텔에 도착한 동석은 경희와 함께 주변 음식점을 찾았다. 음식점 마다 행락객들로 붐볐다. 경희가 산채 정식과 탁주(濁酒) 한 동이를 주문하였다. 두 사람은 서울서 10시간 가까이 달려오느라 상당히 시장하였다.

“동석씨, 제가 한잔 올릴게요.” 경희가 막사발 잔에 탁주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경희씨, 이제부터 우리 호칭을 통일해요. 부부의 연을 맺은 지

꽤 되었는데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니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남이 들으면 부부가 아닌 이상한 관계로 볼까봐 신경이 쓰여요.”

“그럼, 어떤 호칭으로 하세요.” 경희의 두 눈이 반짝거렸다.

“그야, 당연히 여보, 당신이지요.”

“여보, 당신? 호호호호. 그 호칭이 좋겠어요. 어머님이나 시누이들이 놀러왔을 때 저도 호칭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보’라고 부르고 싶어도 입가에서 맴돌 뿐 ‘여보’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동석씨, 아니지 당신 뜻대로 이 시간부터 ‘여보’라고 부를게요. 자, 여보, 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건배해요.” 경희는 신혼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들떠있었다. 동석 역시 혼잡한 도심에서 탈출하여 한적한 설악산에서 아내와 호젓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을 흐뭇해 했다. 탁주 한 동이와 맛있는 안주가 추가로 나왔다.

“우리 오늘 실컷 마시고 놀아요. 내일 모레까지 쉬는 날이니까 시간은 많아요. 당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진작 왔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저 오늘 어때요? 예뻐요?” 경희의 홍조(紅潮)뽀뽀 두 뺨이 잘 익은 사과 같았다.

“그럼, 당연하지. 여기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 다른 사내들이 당신을 흠쳐볼까 신경이 무척 쓰이는걸. 하하 하하하…….”

“정말이에요? 호호 호호호…….”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옆 테이블 손님들은 일제히 동석과 경희에게 쏘리기도 하였다. 중년 남성과 아름다운 미시(Missy)가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에 다른 커플들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밤 10시가 넘어서 동석과 경희는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 일어나면서도 여운이 남은 듯 아쉬워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경희는 동석의 단단한 팔을 잡고 콧노래를 불렀다.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경희는 동석에게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걷자고 하였다. 한 여름인데도 설악산의 밤공기는 차가웠다.

“여보, 내 등에 업혀 봐요. 내가 호텔 입구까지 업고 갈게.” 동석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경희에게 등을 내밀었다. 경희는 얼른 동석의 등에 올라탔다.

‘아아, 내가 언제 이리 단단하고 따뜻한 남자의 등에 업혀본 적이 있었나?’ 경희는 호텔로 돌아오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경희, 아니 여보. 사랑해요. 우리 오늘 신혼여행을 다시 온 거 맞지요? 당신을 안아보니 정말로 내 품안에 쏙들어오네요. 우리 천생연분이에요. 천년만년 잘 살아야 해요. 여보” 동석이 경희를 침대에 눕히고 양파껍질을 까듯 경희의 속옷을 천천히 벗기며 손을 부르르 떨었다. 오렌지 불빛에 드러난 경희의 나신(裸身)은 처녀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동석은 경희와 결혼하고 늘 소등(消燈)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었다. 그러나 은은한 불빛아래 드러난 경희의 육신을 처음 본 동석은 전율(戰慄)하며 마른침을 삼켰다. 경희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동석의 보드라운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다.

긴 전희(前戲)에 이은 부부의 운우(雲雨)는 용호상박(龍虎相搏)의 형상이었다. 동석이 비상하는 용이라면 경희는 사나운 이빨과 발톱을 지닌 호랑이 같았다. 용이 호랑이 전신(全身)을 휘감고 하늘 높이 오르다 갑자기 허공으로 호랑이를 집어 던지면 호랑이는 온갖 재주를 부리며 용을 향해 달려들었다. 용은 호랑이에게 일부러 저주는 척하다가 호랑이의 목덜미를 물고 다시 하늘 높이 솟구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였다. 용이 호랑이의 은밀한 부위를 거칠게 공격할 때마다 호랑이는 거의 실신할 뻔 했다.

산전수전(山戰水戰)을 겪은 영물(靈物)들의 거친 몸싸움은 한 발짝 양보(讓步)도 없었다. 싸움의 기세(氣勢)를 다른 산짐승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만 봐야할 지경이었다. 사투(死鬪)는 두 시간을 넘겨 이어졌다. 용과 호랑이의 체위(體位)가 다양하게 바뀌면서 호랑이의 환희에 찬 포효(咆哮)는 설악산을 휘감았다. 싸움은 무승부(無勝負)로 끝났지만 온 몸에 땀이 송알송알 땀 용과 호랑이는 서로의 육신을 애무하며 달콤한 후회(後戲)가 이어지고 또 한번의 희열로 끝을 맺었다.

“동석씨, 사랑해요. 전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경희의 촉촉한 살갓이 동석의 전신을 다시 덮었다.

“경희, 죽다니. 무슨 방정맞은 소리예요? 우리는 오래오래 부부의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다가 해로동혈(偕老同穴)해야지요.” 동석이 뜨거운 입술로 경희의 젖무덤을 지그시 누르며 속삭였다.

“흐흐흐흐……, 여보 고마워요. 행복한 밤인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바보같이 울기는.” 동석은 경희를 으스러져라 안아주었다. 경희는 동석의 품에 안겨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사람 많은 대공원에 소풍갔다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것 처럼 눈물을 펄펄 쏟았다. 동석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가슴 벅찬 부부관계(夫婦關係)를 가져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보, 저, 저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요.” 경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방안을 밝힌 다음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자못 굉장하리 큰 부탁인 듯 했다.

“부탁? 무슨 부탁인데요?”

“여보, 만일, 이건 만일인데요.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제가 당신한테 부탁하는 대로 해주세요.” 동석은 경희 말에 긴장이 되면서도 도대체 무슨 부탁인지 몹시 궁금해 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이에요. 제 부탁을 꼭 들어주실 걸로 믿겠어요. 요즘 들어 저의 심신(心身)이 저의 의지(意志)와 상관없이 분리(分離)된 느낌이에요. 또한 흉몽(凶夢)도 자주 꾸고요. 아무래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유학중에 있는 제 두 딸들을 당신이 친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그 애들을 보살펴 주세요.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와 빌라는 당신에게 처분권을 위임할 테니 당신이 알아서 써주세요. 그리고 예금과 보험 등도 당신이 알아서 처분하시고요. 안방 화장대 서랍에 제 의향(意向)을 서류로 남겨 두었어요. 제 부탁 들어 주실 거죠?” 경희는 마치 유언(遺言)을 하듯 차분하고 강한 어조(語調)로 말하면서 동석의 동의를 구했다.

“여보, 당신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학중인 당신 두 딸들도 내 딸이나 다름없어요. 꿈은 그냥 꿈일 뿐이오. 그러니 지나가는 행인처럼 생각하오. 나도 가끔 악몽(惡夢)을 꾸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나약하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사람의 앞날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요. 내가 당신 보다 먼저 어떻게 될지 아니면 당신이 어찌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요. 설령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이 그런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아서 하리다. 당신 또한 내가 잘못 되면 내 모든 것도 그리 처리해야 하오. 우리 기분 좋게 신혼여행

온 기분으로 푹 쉬었다 갑시다. 너무 늦었어요. 어서 갑시다.” 동석은 경희를 마치 어미답이 병아리를 품듯 가슴 깊이 안고 잠을 청했다.

“여보, 고마워요.” 경희는 동석의 뜨거운 체온(體溫)이 물밀 듯 전해지는 것을 받으면서 잠을 청했다. 경희는 지난번 학교에서 쓰러진 뒤로 더욱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의사 말대로 부정맥(不整脈) 발발로 언제 어디서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였다. 동석 모르게 매일 복용하는 약 종류만 해도 혈압과 혈전(血栓)관련 약 이외에도 서너 가지는 되었다. 약을 입안에 털어 넣을 때만다 경희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만약 자신에게 정말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편에게 유언(遺言)이라도 남겨두고 싶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석과 유학 중인 두 딸이 자신이 남겨 놓은 재산으로 인한 분쟁(分爭)이 불 보듯 뻔 할 거라고 판단했다.

유학중인 경희의 두 딸들은 아직 동석을 대면(對面)하지 못했다. 경희가 동석과 재혼(再婚)하기 전에 여러 차례 편지와 전화로 자신의 의향과 동석의 사람 됨됨이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그러나 경희의 두 딸들은 경희의 재혼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경희가 동석과 결혼식을 올리는 날에도 두 딸은 현지에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딸들의 생각과 경희의 재혼에 대한 의지에는 상당한 격차(隔差)가 있는 듯 했다. 경희는 두 딸들이 자신의 재혼에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결혼식에는 꼭 참석할거라 믿었다. 딸들과의 의견 차이는 경희를 힘들게 하였다. 만일 자신에게 어떤 유고(有故) 발생시 비록 동석과 재혼은 하였지만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라 재산 처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동석에게 자

신의 속내를 모두 내 보인다면 동석이 자신을 어찌 생각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유언장에 작성된 내용은 동석의 인간성으로 보아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믿고 싶었다.

終

동석과 경희는 눈이 쌓인 설악산(雪嶽山) 대청봉을 향해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다. 깊은 산속으로 이어진 하얀 등산로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있지 않았다. 동석이 앞장서고 경희가 바짝 동석의 뒤를 따랐다. 중간 쯤 왔을 때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눈은 산은 눈 속에 모습을 감추면서 사방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짐승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동석은 불안하여 경희의 손을 꼭 잡고 조심조심 산을 올랐다. 눈 때문에 산을 내려가려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앞만 보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땀을 비오듯 쏟아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대청봉이 보였다. 어림잡아 한 시간 정도만 더 가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동석은 지쳐 보이는 경희를 업으려 하자 경희는 한사코 거절하며 끝까지 건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고도(高度)가 높아지면서 눈이 붉은 색을 띠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참으로 이상한 날씨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좁고 긴 산길이 나타났는데 아래를 보니 천길 낭떠러지였다. 동석은 불안하여 경희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였지만, 경희는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갈수록 눈이 세차게 내렸다. 눈송이가 하나가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솔뚜껑 크기의 눈도 내리면서 세상은 금방 눈에 파

문힐 것 같았다. 하늘에는 집채만 한 독수리가 날면서 먹이를 찾느라 분주(奔走)히 날고 있었다. 동석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독수리 한 마리가 순식간에 경희를 날카로운 발로 잡아채 하늘로 솟구쳤다.

“아악, 저, 경희, 경희이…….” 동석은 침대 위에서 발버둥 치며 경희를 불렀다. 한참동안 울며불며 경희를 부르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떴다. 곁에 경희가 웅크리고 있었다. 동석은 이마에 난 땀을 닦아내며 경희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동석은 경희가 잠에서 깰까봐 살며시 침대에서 나와 냉수를 한 잔 마시고 자리에 다시 누었다. 시간은 새벽 4시를 막 넘기고 있었다. 그런데 경희는 미동(微動)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동석이 경희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차가웠다. 동석은 경희의 왼쪽 젖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보았다. 미지근한 경희의 왼쪽 젖가슴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

“여보, 여보, 경희, 여보, 눈을 떠봐요. 여보, 경희, 경희, 경희…….” 동석이 아무리 경희를 흔들어 깨워도 경희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겁이 덜컥 난 동석은 프린트에 전화를 걸어 긴급한 사항을 알렸다. 차임벨이 울렸다. 동석이 문을 열자 남녀 종업원 두 명이 혈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나이 좀 들어 보이는 여자 종업원이 경희의 몸을 이리 저리 살피더니 어디지 모르는 곳에 전화를 걸었다.

“손님, 부인되시죠? 지금 부인은 심장마비로 가사(假死) 상태 같아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119에 전화를 했으니 앰블런스가 올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같이 갈 준비를 하세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여자 종업원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동석이 다시 경희의 왼쪽 젖가슴에 귀를 대보았지만 미지근한 온기만 감

지되었다.

“여보, 여보, 경희, 나야, 당신 남편이라고. 일어나 봐요, 여보, 여보……, 아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동석은 큰소리로 울부짖었다. 아무리 경희를 흔들어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동석은 간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아내 경희가 한 말을 기억해냈다.

‘이런 일을 미리 예견(豫見)했단 말인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나에게 그런 부탁을 했단 말인가? 어찌 이런 일이 일을 줄 알고서……, 여보, 경희, 경희, 으흐흐흐흐…….’ 동석은 경희를 꼭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119에서 사람들이 도착하여 경희의 맥박과 체온 등을 체크하였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빨리요.” 대원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경희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동석의 마음은 찢어졌다. 동석도 보호자로 따라나서 앰블런스에 몸을 실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앰블런스는 비상등을 켜고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빗속을 질주(疾走)하였다. 차가 금방 속초 시내 큰 병원에 도착하자 경희는 응급실로 실려 갔다. 당직의사와 간호사들이 미리 119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동석에게 경희가 평소에 지병이나 기타 이상 징후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동석은 얼마 전 아내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다고 했다. 응급실로 들어간 경희는 다시 수술실로 옮겨졌고 동석은 대기실에서 경희의 생명을 두고 촌각(寸刻)을 다투는 시간과 싸움을 해야 했다.

“아아,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우리 경희를 살려주세요. 그동안 잘못된 인연으로 고생만 하고 살아온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제 겨우 저를 만나 제2의 인생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슨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일입니까? 저희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시기하시는 겁니까? 시기하시면 저만 벌을 주십시오. 저 여인이 가련하지도 않습니까? 제발, 제발 경희가 벌떡 일어나 제 발로 웃으며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경희만 아무 일 없이 예전 모습으로 되돌려 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이렇게 빌고 빕니다.” 동석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였다.

쓸쓸한 병원에 천둥번개와 함께 빗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한 시간이 지나도록 수술실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애간장이 다 녹아버린 동석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해도 품에 안겨 사랑을 갈구하며 애교를 떨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그런 경희가 싸늘하게 식어 지금 수술실에 외롭게 누워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혔다.

‘아아, 어쩌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온 것일까? 내가 전생(前生)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나에게 이런 험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 조상님을 잘못 모신 탓일까? 아니면 경희와 인연이 아닌데 부부의 연을 맺은 탓일까? 아니야, 경희는 전처(前妻)보다 모든 면에서 나와 잘 맞았어. 몸과 마음 다 잘 맞았어. 그런데 어쩌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인가? 어쩌서?’ 동석이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을 때 손에 수술 장갑을 낀 남자가 나오면서 동석에게 수술실로 들어가 보라고 하였다. 동석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간신히 수술실로 들어온 동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얀 천으로 경희가 가려져 있었고 곁에 의사가 서있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동석이 천을 걷어 내리자 경희는 눈을 감은 채 평안한

얼굴로 마치 잠이 든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여보, 여보, 경희, 눈을 떠봐요. 여보, 여보, 경희, 경희, 눈을 떠보라고, 여보요……, 선생님, 우리 경희가 왜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죠? 왜요?”

“송구합니다. 고인(故人)께서 수술실에 실려 왔을 때 이미 심폐 기능(心肺機能)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시도했습니다만, 결국 소생(甦生)하지 못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冥福)을 빕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수술실을 나갔다.

“아으, 경희, 경희,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이오? 아아, 흐흐흐 흐흐…….” 동석이 주저앉아 목 놓아 통곡(痛哭)하며 땅바닥을 쳐보았지만 경희는 다소곳하게 누워만 있었다. 동녘이 흰히 밝아 오고 있었다. 동석은 경희의 시신(屍身)을 서울로 이송(移送)하였다. 갑작스러운 부음(訃音)을 받고 동석의 가족과 친인척들 그리고 동석의 친구들이 병원 영안실로 몰려들었다. 또한 경희가 다니는 학교 직원들과 친인척들도 몰려왔다. 동석은 유학 중인 두 딸에게 서둘러 경희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이튿날 경희가 두 딸들이 급히 귀국해 경희의 빈소(殯所)에 엎드려 통곡하며 몸부림 쳤다.

“엄마,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돌아가셨단 말씀이예요? 아니죠? 저희 자매를 놀리시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엄마, 엄마 말씀 좀 해보세요? 엄마아-, 흐흐흐흐흐흐……,” 경희 둘째 딸은 울다 지쳐 실신(失神)까지 하였다.

“엄마, 죄송해요. 먼저 엄마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세요. 한 달 후 박사논문(博士論文)이 통과되면 학위 증서를 들고와서 엄마에게 자랑하려고 했어요. 엄마, 이게 어찌된 일이에

요. 엄마아-, 아흐흐흐흐흐흐흐…….” 두 자매가 너무 서럽게 우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은 상갓집에 왔다가 고인에게 인사도 올리지 못하고 두 자매의 오열(嗚咽)을 멀뚱히 지켜만 봐야 했다.

“애들아, 그만 그치 거라.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들이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엄마를 편히 보내드려야지. 자자, 이제 그만 울거라.” 동석이 자매를 다독거렸지만 자매(姉妹)는 오열을 멈추지 않았다. 실신했다가 정신을 차린 경희의 둘째 딸이 동석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아니예요. 우리 아빠 노릇하려고 들지마세요. 당신은 사기꾼이예요. 우리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한거예요? 건강하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돌아가셨난 말이에요? 왜? 왜?” 동석은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서 현기증이 일어 하마터면 쓰러질 뻔 했다.

“아니, 얘야, 그게 무슨 말이니? 계부(繼父)도 아버지란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엄마에게 어떻게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너희들도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를 보았잖니?”

“거짓말 하지 말아요. 당신이 우리 엄마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우리 엄마를 돌아가시게 만든 거예요. 당신은 우리 엄마 재산을 건드리면 안돼요. 건드리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동석은 너무 뜻 밖에 말에 기가 막혔다. 아무리 동석이 이해를 시키려고 했지만 경희의 두 딸들은 거세게 반항(反抗)하면서 동석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 경희의 친인척들은 경희 딸의 이야기에 귀죽은 듯 침묵하며 동석을 주시(注視)하였다.

‘아아, 어쩐지. 경희가 그날 밤, 나에게 재산문제 운운(云云)하

더니 이런 일을 예상했었구나.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내가 경희를 죽게 한 못된 남자로 의심을 받으면 안 되지. 그래, 경희가 남겼다는 그 서류를 보면 알겠군.’ 동석은 즉시 집으로 달려가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화장대 안에 커다란 봉투(封套)가 있는데 앞면에 ‘동석씨에게’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동석은 이 서류봉투를 경희의 두 딸들과 친인척들이 입회한 가운데 개봉(開封)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안실로 가져와 경희의 두 딸과 경희의 친인척들을 모이게 했다.

“여러분, 우선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데 대하여 죄인의 입장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제 아내가 저도 모르게 작성해 놓은 서류입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았습시다. 처의 친인척분들 의구심(疑懼心)을 해소하고자 여러분들이 입회한 가운데 개봉하겠습니다. 봉투 아래 위에 이렇게 봉인(封印)이 선명하게 찍혀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두 딸들이 봉투를 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두 딸들이 먼저 서류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친인척들이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두 의심이 없다는 얼굴이었다. 봉투가 열리고 내용물이 경희의 큰딸 손에 들려졌다.

여보, 요즘 들어 제 몸이 이상해요. 먼젓번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진 이후로 저는 제 건강을 장담할 수 없어요. 만일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이렇게 글로 제 뜻을 남깁니다. 이 글은 제 두 딸들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 명의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와 빌라는 당신이 처분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써주시고, S생명과 K생명에 가입된 저의 생명보험금과 예금은 찾아서 당신과 두 딸들이 1/3씩 공평하게 나누세요. 이

증서는 이미 공증(公證)을 받아놔서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 동안 저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두 딸들에게, 내가 제대로 엄마 노릇을 못한 거 같구나. 그동안 너희 자매가 공부 때문에 엄마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구나. 너희들은 엄마가 공들여 유학까지 보냈으니 졸업하면 너희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엄마가 남긴 재산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아빠(신동석)와 잘 상의하여 사용하기 바란다. 엄마가 남긴 예금과 보험금이면 너희들이 얼마 남지 않은 학업(學業)을 마치는 데 충분할거야. 그리고 엄마가 세상에 없더라도 아빠에게 잘해야 한다. 이 서류가 영원히 개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만, 엄마의 건강이 의심스럽구나.

여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할게요. 저를 화장(火葬)해서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양평의 두물머리에 뿌려주세요. 우리 몇 번 기분 좋으셨어요.

경희의 유언장이 공개(公開)되자 잔뜩 기대했던 두 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동석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경희의 친인척들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적절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언장이 조작된 거 아니냐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공증까지 마친 서류라 법적 효력에 대하여 누구도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수 없었다. 다음날 경희는 벽제에서 화장되어 동석이 경희의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희의 유골을 아침 해가 뜨기 전 물안개가 뿌옇게 피어오를 때 두물머리에 뿌렸다.

“여보, 경희, 미안해요. 나도 당신 뒤를 따라야 하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당신과 함께 천년만년 살고 싶었소. 나는 죽을 때 까지

혼자 살면서 당신을 늘 생각할거요. 잘가요, 내 사랑, 으흐흐 흐
흐흐…….” 동석은 경희의 하얀 유골(遺骨)이 강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였다. 경희의 장례식이 끝나자 경희의 두
딸들은 경희의 유언은 동석에 의해 조작(造作)되었다면서 경희
명의로 아파트와 빌라를 보험과 예금을 모두 자신들에게 넘겨 달
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석이 고인이 승고한 뜻을 지켜야 한다며 곧 아파트와
빌라를 처분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재단(社會福祉財
團)에 기부(寄附)할 예정이고 예금과 보험은 모두 넘겨주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자 사기(詐欺)에 의한 재산 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동석을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기하였다. 경희가 세상을
뒀다는 소문을 들은 동석의 전처 S는 남매를 앞세우고 동석이 살
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왔다. 동석은 S가 파산하여 갈 데가 없다
는 것과 두 아이들을 생각해 차마 전처를 내쫓지 못하여 옆방을
내어주고 살게 하였다. 묘한 시기에 S가 찾아온 것이었다.

경희가 남긴 아파트와 빌라의 시가(時價)는 총 40억 원이 조금
넘었으며 보험과 예금은 10억 원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경희의
딸들은 조금도 동석에게 경희의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다. 결국 동석과 경희의 두 딸은 법정에 서게 되
었고 첫 변론, 둘째 변론이 지나서 결국 판결이 나는 날이 되었다.

[원고들의 고 이경희의 부동산 및 예금 등 명의이전 청구를 기
각한다. 고 이경희의 유언은 법적하자가 없으므로 피고가 빠른
시일 안에 유언대로 처리한다.]